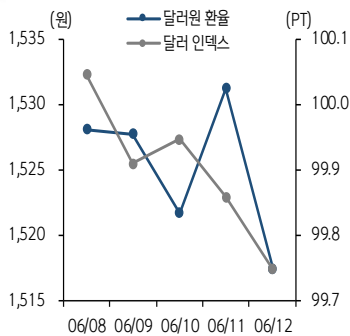


워시도 인플레이를 사랑한다 말할까?

FX Talk & Insight : 금주 1,480~1,520원 전망

미국과 이란의 상호 공습으로 가라앉았던 시장 분위기가 협상 마무리 단계 소식에 환호하는 등 급등락 반복하는 양상. 원유 성수기 진입으로 트럼프도 부담 커져 19일 양국 협상 서명 예상되나, 평화 지속성에 대한 의문은 남겨질 소지. 중동은 인상 시점에 대한 변수일 뿐, 물가 상승하고 AI의 성장 견인력 이어지고 있어 향후 연준 정책 경로 변경은 불가피. 중동발 안도감에도 불구하고 FOMC에서 워시 신임 의장의 인플레이션 진단 결과에 따라 외환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할 소지

외환시장



중동 전환에 따라 비교적 큰 폭의 등락을 반복하며 국내외 증시가 소란스러운 가운데 연준 의장의 자리를 차지한 워시의 첫번째 FOMC가 다가오고 있다. 그린스펀(1987년), 버냉키(2006년), 옐런(2014년), 파월(2018년)으로 이어지는 전임 의장들의 첫 번째 FOMC를 살펴보면, 대체로 전임 의장의 통화정책을 승계하였다. 그래서 금리인상기에 데뷔한 그린스펀, 버냉키, 파월은 첫 FOMC에서 금리를 올렸고, 옐런은 제로금리를 유지했다. 이렇게 통화정책 기초를 유지하다 보니 시장의 기대에 대체로 부합했고, 시장에 큰 충격을 야기하지 않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다만 금리인상 막바지였던 그린스펀은 첫 FOMC 직후 블랙먼데이를 맞이하는 곤욕을 치르며 통화긴축을 철회하였고, 옐런은 기자회견에서 양적완화 종료로 오해할 만한 말실수로 시장을 놀라게 한 적도 있다.

따라서 이번 FOMC에서 다음과 같은 3가지 이슈에 대한 파월 의장의 발언을 주시해야 할 듯하다. 우선 화두가 될 수 밖에 없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판단이다. 비록 시가 가져오는 생산성 향상이 물가를 낮추는 효과를 중장기적으로 기대할 수는 있지만, 현재로서는 중동전쟁의 장기화로 원유시장의 수급이 불안해 물가상승이 한동안 지속될 공산이 더 크다. 연준 이사 시절 보여준 인플레이션 파이터의 본성을 감안한다면, 기자회견을 통해 워시 의장이 물가에 대한 경계감을 강하게 피력할 경우 연준의 연내 금리인상으로 시장 기류가 급속히 이동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다.

전망치	금주 예상 레인지	
	저점	고점
달러원	1480	1520
달러엔	158.0	160.0
유로달러	1.153	1.168

두번째는 중앙은행 독립성에 대한 언급이다. 앞서 워시는 청문회에서 연준의 독립성을 고수하겠다고 했지만, 트럼프의 금리인하 요청이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다는 다소 모호한 발언을 한 바 있다. 아마도 연준이 정치적인 독립은 필요하지만, 정부와 정책 공조는 별개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연준 독립성과 연계해 트럼프 정책의 타당성에 대한 워시의 의중이 드러날 수 있을 듯하다. 현실적으로 트럼프가 검증을 통해 신중하게 워시를 지명한 만큼,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할 가능성은 낮을 것 같다. 따라서 연준 독립성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소지가 크다.

마지막으로 점도표를 비롯한 포워드 가이드의 폐지 여부이다. 제로 금리를 벗어난 만큼 포워드 가이드의 효용성이 떨어지고 전망의 불확실성이 내포되어 있다는 점은 분명한 약점이다. 그러나 보수적인 FOMC 구조상 단기간내 사라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할 것이다. 다만 포워드 가이드의 위상이 후퇴하는 대신 지금 당장 보이는 물가와 고용 등이 더 중요해질 것이며, 각자 서로 엇갈릴 수 밖에 없는 연준 인사들의 발언으로 자칫 시장의 민감도는 높아질 수도 있을 것 같다. 따라서 워시는 포워드 가이드 폐기에 보다 충분한 논의와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밝혀야 할 것이다.

공교롭게도 트럼프가 야기한 중동 전쟁으로 통화 정책의 변곡점이 빨라지는 가운데 다소 파격적이고 직설적인 화법을 구사하는 것으로 알려진 워시의 말 한마디에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만일 워시가 인플레이 위험을 가볍게 보지 않는다면 금융시장 경계감이 더 올라갈 것이다. 물가가 독립성을 지켜주고 포워드 가이드를 무력하게 하는 것은 덤이다. 결국 시간이 갈수록 중요해질 향후 연준 금리 인상의 강도와 시점 역시 미국-이란의 종전인지 휴전인가에 따라 다소 달라질 것이다.

Economist 소재용

jyso@shinhan.com
02-2151-2638

Economist 백석현

seokhyun100@shinhan.com
02-2151-26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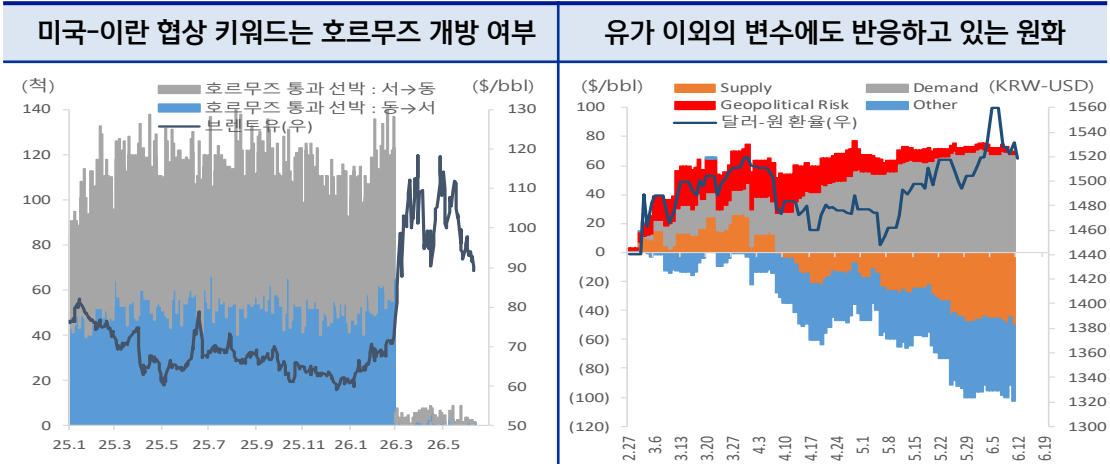
Weekly FX Economist View

워시도 인플레를 사랑한다 말할까?

그림으로 해석하는 매크로 관전 포인트

미국-이란간 협상 마무리 기대감 커지며 온탕과 냉탕을 오가는 상황. 고유가 장기화에 대한 피로감 커지고 있어 원유 성수기 이전 타결이 중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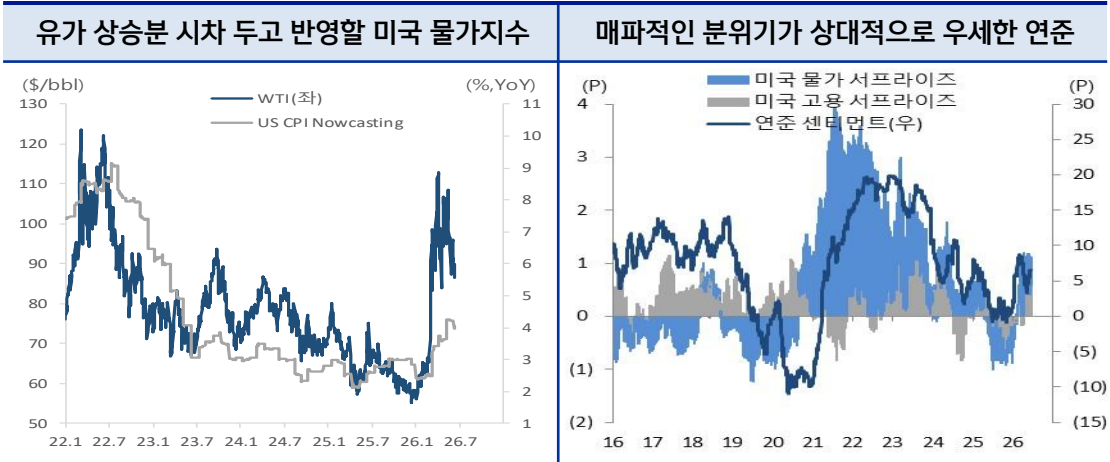
중동 전쟁 종결될 경우 원화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듯. 다만 유가의 하방 경직성 아래 글로벌 통화 긴축 움직임 및 주식 과열 경계감 등도 반영



자료 : Bloomberg, Refinitiv, 신한은행 S&T 센터

5월 CPI/PPI 각각 4.2%/6.5%로 시장 기대에 부합했으나 추가 상승 여지 남겨. 국제유가의 하락 속도에 달렸으나 CPI 5%대까지 상승 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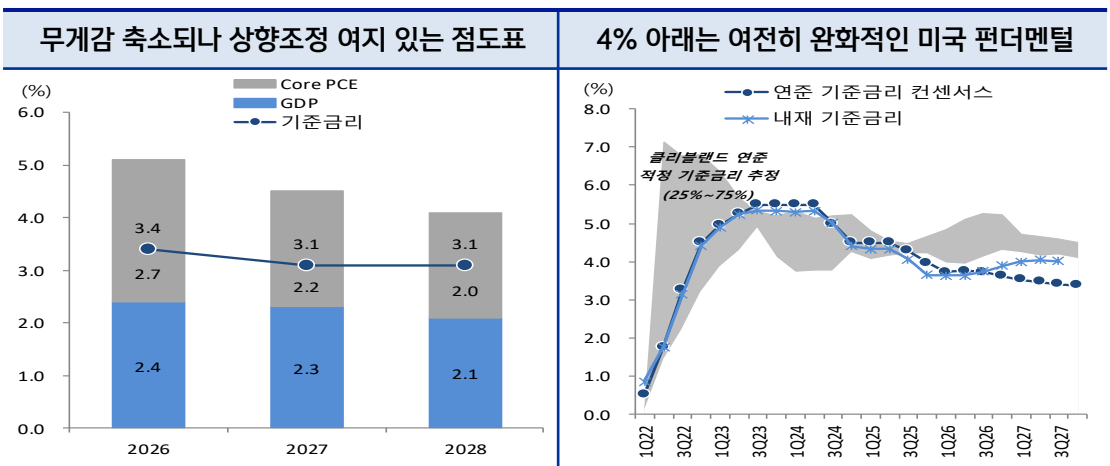
고용 서프라이즈에 이어 물가 상승세 전개됨에 따라 연준내 분위기도 매파적으로 선화 조짐. 워시 의장의 첫 FOMC 결과에 시장이 집중할 듯



자료 : Bloomberg, Refinitiv, 신한은행 S&T 센터

포워드 가이드스 무게감 다소 떨어질 수 있지만, 물가의 상향조정으로 점도표도 높아질 소지. 금리인하는 종결, 향후 정책은 인상으로 선화

금리인상 시점은 단기적으로 중동 전황에 따라 잘라질 가능성. 다만 중장기적으로 현 수준의 금리도 완화적인 만큼 연내 인상도 배제는 못해



자료 : Bloomberg, Refinitiv, 신한은행 S&T 센터

Weekly
FX Economist View

워시도 인플레이션을 사랑한다 말할까?

금주 발표되는 주요 경제지표

경제지표 발표 일정						
	국가	이벤트	기간	예상치	이전치	중요도
6/12-15/2026	CH	통화공급 M2 전년비	May	8.60%	8.60%	83
6-15-2026 22:15	US	광공업생산 MoM	May	0.20%	0.70%	89
6-15-2026 22:15	US	설비가동률	May	76.20%	76.10%	63
6-15-2026 23:00	US	NAHB 주택시장지수	Jun	36	37	52
6-16-2026 11:00	CH	소매판매 YoY	May	0.00%	0.20%	85
6-16-2026 11:00	CH	광공업생산 YoY	May	4.30%	4.10%	88
6-16-2026 11:00	CH	고정자산(농촌제외) YTD YoY	May	-2.30%	-1.60%	60
6-16-2026 13:30	AU	RBA 목표금리	16-Jun	4.35%	4.35%	100
6-16-2026 18:00	GE	ZEW 서베이 예상	Jun	-7.5	-10.2	96
6-16-2026 21:30	US	수입물가지수 전월비	May	--	1.90%	79
6/16/2026	JN	BOJ 정책 금리	16-Jun	1.00%	0.75%	99
6-17-2026 8:50	JN	무역수지	May	-¥559.6b	¥301.9b	68
6-17-2026 21:30	US	소매판매 추정 전월비	May	0.50%	0.50%	94
6-18-2026 3:00	US	FOMC 금리 결정 (상한)	17-Jun	3.75%	3.75%	98
6-18-2026 20:00	UK	영란은행 기준금리	18-Jun	--	3.75%	99
6-18-2026 23:00	US	선행지수	May	--	0.10%	84
6-19-2026 5:00	US	순장기TIC흐름	Apr	--	\$81.3b	73
6-19-2026 6:00	SK	PPI 전년비	May	--	6.90%	66
6-19-2026 8:30	JN	전국 CPI (전년대비)	May	1.50%	1.40%	93

자료 : Bloomberg, 신한은행 S&T센터

주 : 날짜 및 시간은 한국 기준/P(속보치), A(잠정치), F(확정치)/중요도는 숫자가 높을수록 중요한 지표로 평가
US(미국), EC(유로존), UK(영국), GE(독일), JN(일본), CH(중국), CA(캐나다), AU(호주), SK(대한민국)

서울 외환시장

(단위 : 원)

구분	달러/원	위안/원
시가	1,518.0	225.0
고가	1,523.8	225.0
저가	1,515.2	224.3
종가 ¹⁾	1,519.8	224.8
전일비	-9.1	-0.7
평균환율	1,520.4	224.6
NDF(1M)	1,517.2	
거래량	121(억불)	379(억위안)

1) 서울외환시장 3시 30분 종가

주요 통화 환율

통화	환율	전일비
USD/KRW	1,517.40	-4.30
JPY/KRW	947.06	-9.57
EUR/KRW	1,756.20	-1.43
GBP/KRW	2,033.61	-21.60
AUD/KRW	1,068.96	-11.04
CAD/KRW	1,084.64	-12.31
USD/JPY	160.24	0.31
EUR/USD	1.1568	-0.0010

금리 장외파생상품 (원화)

(단위 : %)

만기	IRS	전일비	CRS ²⁾	전일비
1Y	3.510	-0.088	2.970	0.00
2Y	3.813	-0.115	3.240	-0.04
3Y	3.911	-0.118	3.340	-0.06
4Y	3.955	-0.128	3.410	-0.07
5Y	3.983	-0.130	3.475	-0.07
7Y	4.006	-0.137	3.490	-0.06
10Y	4.023	-0.140	3.345	-0.07

2) 3개월 주기로 무위험지표 복리평균금리(Compounded SOFR) 3개월물과 교환되는 원화 고정금리

기준 금리 및 채권금리 (원화)

구분	종가	전일비
CD 91일물	2.92	-0.03
통안 1년	2.18	-0.04
통안 2년	3.71	-0.09
국고채 3년	3.79	-0.12
국고채 5년	3.96	-0.13
국고채 10년	4.20	-0.12
국고채선물(3년)	103.37	+0.01

단기 FX Swap Point (원화)

(단위 : 전)

만기	SWAP Point	전일비	Implied CRS
1M	-135	5.00	2.65%
3M	-375	-5.00	2.69%
6M	-700	60.00	2.83%
1Y	-1,340	90.00	3.03%

금리 장외파생상품 (미국)

(단위 : %)

만기	국채	전일비	IRS ³⁾	전일비
1Y	3.84	-0.051	3.88	-0.047
2Y	4.08	-0.062	3.94	-0.065
3Y	4.13	-0.070	3.93	-0.068
5Y	4.21	-0.074	3.93	-0.070
10Y	4.48	-0.073	4.08	-0.066

3) 1년 주기로 무위험지표 복리평균금리(Compounded SOFR) 1년물과 교환되는 달러 고정금리

주요 증시

증시	종가	전일비	
KOSPI	8,123.62	+359.67	+4.63%
미국 DOW	51,202.26	+353.51	+0.70%
중국 상해종합	4,031.51	+44.50	+1.12%
일본 NIKKEI 225	66,020.04	+1,802.77	+2.81%
영국 FTSE 100	10,471.72	+167.84	+1.63%

기타

종목	종가	전일비
WTI (선물)	84.88	-2.83
금 (선물)	4,215.00	+124.70
3M TERM SOFR	3.67	+0.01
3M EURIBOR	2.38	-0.02
KOR 5Y CDS	22.57	-0.81

· 본 자료는 자료 제공일 현재 시점에서의 의견 및 추정치로서 실적치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를 유도할 목적이 아니라 고객의 투자 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매매는 본인의 책임하에 진행되어야 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자료는 당행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어떠한 경우에도 당행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재배포 될 수 없습니다.